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홍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4 권 47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 30 분(스페인어)
한국어 평일미사: 매주 수요일 저녁 7 시 30 분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성경공부: 주일미사후 친교실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오후 5:00 - 5:30). 금 (오전 9:00 - 9:30)
임원회의: 매월 둘째 화요일 오후 8 시, 평협회장: 박영우 니콜라스 (661-703-5957)
성당사무실 시간: 월, 금요일(오후 2 - 8 시). 화, 목요일(오후 2 - 6 시).

미 사 성 가	입당 ()	봉헌 ()	성체 ()	파견 ()
위령성월 기도 ○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주님, 제 소리를 들어주소서. ● 제가 비는 소리를 귀여겨들으소서. ○ 주님께서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리이까. ● 오히려 용서하심이 주님께 있사와/ 더 더욱 당신을 섬기라하시나이다. ○ 제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오며/ 당신의 말씀을 기다리나이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제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나이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나이다. ● 주님께는 자비가 있사옵고/ 풍요로운 구속이 있음이오니 ○ 당신께서는 그 모든 죄악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리이다. + 기도합시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믿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느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어 주님을 섬기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이 바라던 영원한 행복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주님,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 아멘.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나이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덕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아멘.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11/16	이 클라라	김 헬레나	허 벤자민, 박 다니엘
11/23	이 마틸다	이 바오로	성인 복사
11/30	유 요한	김 헬레나	허 벤자민, 박 다니엘
12/7	이 클라라	이 바오로	허 벤자민, 박 다니엘

*'제 1 독서' (한글)/ '제 2 독서' (영어).

미사 봉헌금 및 교무금

주일미사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11/9	\$ 260	-	\$ 500

*감사헌금: \$50. *2 차 봉헌: 매월 첫째, 셋째 주일미사.

11 월 위령 성월 : 주일 미사 시작 전

11 월에는 주일미사 시작 5 분 전, 매일미사책의 '위령성월기도'를 바칩니다.

추수감사절 미사: 11/27 (목) 오전 9:30 분

추수감사절 미사가 11 월 27 일 오전 9 시 30 분에 있습니다.



한국어 평일미사: 매주 수요일 저녁 7 시 30 분

매주 수요일 저녁 7 시 30 분에 한국어 평일 미사가 있습니다.

성서통독: 매 주 '주일 미사 후 10 분씩'

6 월 22 일부터 주일미사후 10 분씩 '사도행전'을 다함께 봉독하고 있습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에서 펴낸 성서를 지침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필서: 1-8 장, 9-16 장, 17-28 장 세부분으로 나눠서 구역장님께 제출.

대림 피정 강의: 12/7(주일) 예정

예수회 (서강대) 심백섭 유스티노 신부님께서 피정강의를 해 주실 예정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

공동체 소식

11 월 위령미사 봉헌

11 월 한달 동안 '위령미사 봉헌'을 하실 분들은, 본당에 준비된 연미사 봉헌봉투를 이용해 주십시오.

본당자선 행사 후원 요청 ('Feed the Homeless')

추수감사절을 맞아, 산클레멘테 본당 주최로 '집없는 불우이웃을 위한 자선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당행사를 위해서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장소: St. Vincent Center (310 Bakers St., CA 93305).

시간: 11 월 22 일 (토) 오전 6 시 30 분 - 정오.

연락처: Mr. Castellanos (Tel: 661-717-7570)

필요물품: 칠면조, 양말, 내의, 수건, 세면도구(비누, 치약, 칫솔, 비누) 등

소공동체 구역모임: 11/16 (주일) '오전 8 시 주일미사 후'

11 월 소공동체 구역모임은 11 월 16 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신부님 볼리비아 선교지 방문: 11/10 -11/21

전 요아킴 주임신부님의 볼리비아 선교지 방문일정은 11 월 10 일부터 11 월 21 일까지입니다. 뜻깊은 시간을 보내실 신부님의 안전한 여행길이 되시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11 월 첫째주부터 셋째주 까지 한국어 미사 (매주 수요일)는 없습니다.

대림 꽃 봉헌 안내



대림시기를 맞아, 대림 및 성탄기간 동안 제대를 장식할 포인세티아 꽃 봉헌을 받습니다. 봉헌하실 분은 한인공동체 이 그레이스 자매님 또는 성당 사무실로 제출해 주십시오.



성탄공연: 12/19 (금) 오후 6 시 30 분

전요아킴 신부님과 어린이 성가대의 성탄공연 일정이 아래와 같습니다.

시간: 12 월 10 일(금) 오후 6 시 30 분. 장소: 본당.

티켓: \$10 (17 세 미만은 무료입장). 많은 참석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 가을 축제(하마이크)를 위해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이삭

평상심의영성

이 해인 수녀 시인|울리베타노 성베네딕도 수녀회

독서자가 큰 소리로 / 책 읽는 소리를 들으며 밥을 먹는데
식탁 위의 반찬도 / 숟가락 젓가락도
나보다 먼저 엎디어 / 기도를 바치고 있네
침묵 속에 감사하며 / 엄숙하게 먹는 밥도
수십 년이 되었건만
나는 왜 좀 더 거룩해지지 못할까 / 밤에게도 미안하네
멀리 바다가 보이고 / 창가에선 고운 새가 노래하고
나는 환히 웃으며 / 일상의 순례를 시작하네
- 이해인의 시 <수도원의 아침식탁> -

프란치스코 교황이 남긴 트위터(2013.12.13)에 '거룩함은 특별한 것을 행함을 뜻하지 않고, 사랑과 신앙으로 평범한 것을 행함을 뜻합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나는 그 말씀의 묵상 끝에 "주님, 저의 평범한 일상이 사랑의 지향과 행동 안에서 아름답고 비범한 꽃으로 피어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보았습니다.

우리 글방에는 신영복 선생님이 써주신 평상심이라는 글씨가 걸려 있고, 성녀 소화데레사의 자서전에 나오는 평범한 비범함에 대한 글귀들, 논어에서 발췌한 수기안인(修己安人) 글씨로 만든 족자 등, 오며 가며 볼 수 있는 좋은 글귀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내게 별도의 종이에 사인을 해 달라고 하면 '늘 푸른 평상심으로 오늘도 새롭게!' 라고 써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도원에서 어느덧 반세기를 살아왔어도 이 평범한 비범함에 깃든 영성을 겸손하고 인내롭게, 더구나 사랑을 넣어서 살아내기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밥먹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는 일,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사람을 만나는 일 등 모든 것을 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오는 행복은 단지 거기서만 머무르지 않고, 세상의 아픔에 귀 기울이고 이웃을 배려하고 봉사하는 일을 가능하게 하는 단단한 기초가 되어줍니다.

신앙의 여정에서도 좀 더 특별한 것을 체험하고 싶고, 인간관계 안에서도 좀 더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고, 문학의 길에서도 좀 더 멋지고 특별하고 싶은 욕심과 허영심이 슬며시 고개를 들어 나를 괴롭힐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평범하지 않고서는 특별한 것도 있을 수가 없을것입니다. 그날이 그날 같은 평범한 일상이 때로는 지루한 사막처럼 여겨지기도 할 테지만, 나를 시간 속에 길들이고 성숙하게 하는 것은 바로 평범함을 견디고 충실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날을 돌아보면 평범한 길에서 멀리 있어 눈물 흘린 날들도 많았지만 평범함의 행복을 다시 살고 또 노래할 수 있어 행복한 날들입니다. 한결같은 마음, 평소와 같은 마음이 놓아 주는 수수하고도 순수한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의 주인공이 되도록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님 오늘도 제가 평범한 지루함을 견딜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십시오. 일상에 대한 충실함이 성화의 첫걸음임을 잊지 않게 해 주소서."하고 기도 하는데 하늘의 흰구름이 예쁘게 손 흔들며 웃어 줍니다.

<서울주보에서>